

청량한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마음 오카리나연주봉사단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가 나오자 어르신들 모두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익숙한 이 노래에 맞춰 맑고 청량한 오카리나 연주가 이어지고, 아코디언이 화려하면서도 정감 가는 연주로 멜로디를 받쳐준다. 어르신들께서 마음껏 노래 부르시도록 미리 가사를 알려드리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마스크로 인해 보이지 않아도 어르신들 모두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글. 강나은(편집부) 사진. 김성재



고양실버인력뱅크의 오카리나연주봉사단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행복

일주일에 한 번씩 강좌 시간에 연습은 필수, 그 외에도 공연 전에 비정기적인 연습이 이어진다. 이에 이상군 단원은 봉사를 통해 한꺼번에 두 가지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을 잇는다.

“같은 요양원에 두 번, 세 번 가면은 동일한 곡을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새로운 곡을 선정해주시고, 악보 등을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신곡을 연습하죠. 저희도 새로운 곡을 배우니까 실력이 좋아지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공연해드림으로써 보람도 느껴요.”


공연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고양실버인력뱅크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공연에 나선다.

“어버이날 공연할 때마다 저는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어르신 중에서 자식이 자주 안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외로움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공연으로 조금이나마 그 외로움을 달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주활동

서란희 단원은 어버이날 이야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 보셨잖아요? 정말 행복해하세요. 요즘엔 먹을 게 없지 않아요. 다 있는데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고 있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노동으로 하는 것만이 봉사라 아니라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도 봉사라고 느끼곤 해요.”

오카리나연주봉사단의 단원 대부분은 70대이다. 채경자 반장은 80대를 앞에 둔 79세의 나이를 자랑한다. 모두 음악을 즐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일까. 단원들의 활기찬 표정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았다. 



수강생이 봉사자가 되어 펼치는 오카리나 공연

서란희 단원(73)은 8년, 막내인 이상군 단원(67)은 7년 차 연주자이자 봉사자가 되었고, 이 단원들을 이끄는 오카리나 연주봉사단 채경자 반장(79)은 무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카리나연주봉사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서란희 단원과 이상군 단원은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오카리나 연주봉사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 같이 입을 모은다. 그도 그럴 것이 오카리나연주봉사단은 채경자 반장의 강좌를 통해 오카리나를 배운 수강생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채경자 반장은 아이를 가르치느라 교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피아노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등산 중 허리를 다친 뒤로는 피아노를 치기 어려워 아코디언을 배웠다. 그는 아코디언 콩쿠르대회에서 1등을 거머쥐었고, 부상으로 아코디언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아코디언 강의 의뢰가 이곳저곳에서 이어졌지만, 무거운 악기보다 더 가벼운 악기를 찾았던 채경자 반장의 눈에 작고 귀여운 오카리나가 보였다.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자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성의껏 가르쳤어요. 그 덕분인지 학생들도 즐거워하고, 매번 이렇게 봉사도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공연은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은 물론, 아이들이 머무르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루어진다. 단원 모두 손주를 보러 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서의 공연은 완전히 멈춘 상태이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만 이루어지고 있다.